

## 서문 Preface

저의 두 번째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개정을 거듭하며 무려 2,049쇄를 찍고 1000만 부가 팔렸다는, 오노 게이지로의 [영문독해연구법]을 해설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알파벳은 안다. 그 이상은 모른다.’라고 하는 완전 생기초에서 출발해서 [구문도해 기초영어구문론] 강의를 통해 탄탄한 기초를 쌓았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장도 줄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차례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영어학습서입니다.

실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실용서다운 실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좋은 영어학습서의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① 학습내용의 실용성
- ② 정곡을 찌르는 논리적 해설
- ③ 앞 문장을 공부하면 뒤 문장이 저절로 이해되도록 안배된 징검다리식 예문배열
- ④ 영어의 본질에 충실한 어원분석과 외우기 쉬운 어휘해설, 그리고 순차적 어휘배열
- ⑤ 학습하기 편리한 편집

그렇다면, 다음에서는 위에 제시된 요건에 비추어서 이 책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 책의 공부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해설서의 특징 About this book

## 1. 학습내용의 실용성 (핵심내용에 집중)

오노 게이지로의 [일본에서 1000만 부 팔린 영문독해법연구]는 적은 양의 공부로 최고의 성과를 내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한마디로 **시간가성비 최강**의 책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책이 일본에서 1000만 부나 팔린 것입니다.

만일 이 책의 독자가 수험생이라면, 독자가 공부하는 것이 정말로 시험에 나와야 합니다. 독자에게 쓸데없는 노력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공부한 내용이 당장 시험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책의 독자가 수험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이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시간 내에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헤멜 것 없이 곧장 나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초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맨날 왕초보 영어나 기웃거리면서, 'I am a boy.'와 같은 하나하나의 예문만 백날천날 공부해보았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흔히들 '나는 기초가 부족해. 지금 당장 영어원서를 읽거나 신문을 읽기는 어렵지. 저 높은 수준의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진짜 아무런 준비 없이 높은 수준의 영어로 그냥 돌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전을 찾아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먹지 못합니다. 저는 7시간을 써름해도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경우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어원서나 문제집에 도전하자면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라는 게 원래 막히는 데서만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막히는 POINT만 딱 해결하면 신기하게 영어가 뚫립니다. 거기가 영어의 맥점입니다. **관히 엉뚱한 데서 힘쓰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요 POINT를 뚫어내는 가성비 높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영어신문, 영어원서, 영어성경 등이 읽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 문제집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하, 이 문제는 요거 물어보려고 냈군!' 하면서 출제의도까지 꿰뚫어 보게 됩니다. 요 핵심 POINT들만 장악하면, 신기하게도 외국회사를 상대로 e-mail 정도는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사전을 조금만 의지하면, 혹시 틀린 문장 쓸까 불안해하지 않고 정연한 문장으로 남부끄럽지 않게 대학원논문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 [일본에서 1000만 부 팔린 영문독해연구법]라는 책의 어마어마한 효용성이 있습니다. 이 책 때문에 편저자 ‘오노 게이지로’는 ‘영어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노 게이지로’는 영어의 독심술사입니다. 보통의 영어학습자가 제일 가려워하는 부분만 콕콕 짚어내는 데에 천재적인 안목을 가졌습니다. 그는 영어의 맥점을 알아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 적은 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1000만 부 팔린 영문독해법연구], 이 책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다들 가려워하는 91개 항목을 꼭 짚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POINT 선정이 바로 이 책의 진수입니다. 이 POINT들만 섭렵하고 나면, ‘야!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는 각 항목에 대해서 초급, 중급, 상급 3단계의 예문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제3단계의 예문은 대부분 그 어렵다는 일본대학입시 본고사 기출문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소개된 제3단계의 문장까지 섭렵하고 나면 더이상 영어의 기초가 부족하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기 전 단계로, [노장석의 구문도해 기초영어구문론] 강의를 공부한 사람은 쓸데없이 이것저것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딱 이 책만 제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신문, 영어원서, 영어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라면 곧바로 자기가 응시할 시험용 문제집 한 권 풀고 시험장 들어가면 됩니다. 준비 없이 그냥 문제집 풀면 1년 가도 진도 못 나가는데, [일본에서 1000만 부 팔린 영문독해연구법 해설]을 공부하고 나서 문제집 풀면 신기하게 진도가 팍팍 나갑니다.

## 2. 문제의 본질과 정곡을 찌르는 해설

그런데 오노 게이지로의 [영문독해법연구]라는 책에는 결정적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책이 얇아서 좋긴 하지만 너무 불친절합니다. 이 책의 장점은 포인트 선정과 예문선정, 딱 거기까지입니다.

*오노 게이지로의 포인트선정 및 예문선정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절한 설명을 한답시고, 쓸데없이 말만 길게 늘어놓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수학 문제집을 풀다가 막혀서 해설을 보면 내가 아는 부분은 설명이 잘 되어있고,

정작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저 노장석의 역할이 있습니다.**

노장석의 해설은 정확하게 정곡을 찌릅니다. 군더더기 없이 본질을 바로 보여줍니다. 영어 자체의 언어논리를 간단명료하게 체득시킵니다.

*영어의 구조와 원리는 매우 단순하고 아름답습니다.*

배우기가 매우 쉽습니다. 쉬워도 너무 쉽습니다. 얼핏 보기에 복잡해 보이는 **영어의 단순성과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이 해설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번 [구문도해 기초영어구문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주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구 덕분에 영어의 구조와 원리가 여러분의 뇌에 말 그대로 새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A. 그 첫 번째 도구는 바로 그림, 즉 Diagram입니다.**

Diagram이라는 시각적 도구를 통해 영어의 설계도 자체를 눈앞에 바로 펼쳐드립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한 예시로, 상황을 설정해보겠습니다.

<상황설정 - 지하철 출구를 나와서 은행(농협)을 찾는 상황>

나:  
 “아저씨, 근처에 농협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지나가는 아저씨:  
 “예, 이쪽 골목으로 조금 들어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편의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 편의점 앞에서 왼쪽으로 골목을 따라 가다 보면 왼쪽에 골목이 하나 나오는데 그리로 가지 말고 더 직진으로 가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꺾이는 길 바로 전에 왼쪽 골목으로 들어 가시면 다시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 갈림길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왼쪽에 농협이 보일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아저씨의 설명이 머릿속에 딱 꽂혀요? 바로 이해가 됩니까?  
 설명하는 아저씨는 지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듣고 있는 내 머릿속에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길 안내를 해준다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아저씨의 설명이 머리에 확 꽂히지 않습니까? 아니 설명 안 들어도 약도만 보면 바로 편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오노 게이지로가 기가막히게 선정한 91개 POINT와 예문이 여러분의 뇌에 딱 새겨지도록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Reed 교수와 Kellog 교수, 두 사람이 개발하고 서울대학교의 유진 교수가 한국에 도입 소개한 Diagram을 활용합니다.

*이 Diagram은 현대 언어학의 쾌거입니다.*

배우기가 너무 쉽고 단순합니다. 고작 12개의 요소로 영어를 레고 조립하듯이 조립합니다.

이 Diagram으로 영어를 그림 그리듯이 한번 시각화해보고 나서,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저절로 문장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라도 전치사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생생하게 재생됩니다. 숙달되면 Diagram을 직접 손으로 그리지 않고서도 문장의 구조가 딱딱 눈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영어문장의 구조가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어를 볼 때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바로바로 알아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해석해보라고 하면 ‘영어로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말로는 표현을 못하겠다’는 헛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즉석에서 바로바로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해석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혼자 읽을 때는 우리말을 거의 떠올리지 않습니다. 영어문장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말로 힘들게 해석해가면서 읽지 않게 됩니다. 우리말 개입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연습하면 모든 시험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1분에 150단어 독해능력도 저절로 몸에 익혀집니다. 그러면 찌기 훈련하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도 없어지겠지요.

**B. 그런데, 이 해설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빨녹파 분석법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영어의 오른쪽 구조]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예문의 해설에 ①주절에 나오는 동사는 빨간색, ②종속절에 나오는 동사는 녹색, ③to-부정사, 분사, 동명사 등 준동사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바로 가 능 영어 Hamburger English, 한산출판사]의 저자 이계양선생님의 아이디어인데, 이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귀한 아이디어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주신 이계양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일만 마디 설명을 듣는 것보다 더 쉽고 선명하게 영어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교재의 본문에는 빨녹파 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 다. 처음부터 빨녹파 표시를 해주면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해볼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 다. 그래서 웹으로 제공되는 diagram 해설에서만 빨녹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diagram 해설을 통해서 제공되는 빨녹파 분석법을 훈련해 둔다면, 정교한 diagram을 그릴 시간이 없는 시험현장이나 일상적인 독해현장에서 놀라운 효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해의 속도와 정확도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정교한 diagram을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습득하기 어려운 응용기술이기 때문에, 먼저 diagram 훈련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C. 위와 같은 설명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 문법설명 등은 모두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도표로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 3. small step의 원리와 징검다리식 예문배열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노 게이지로의 [일본에서 1000만 부 팔린 영문독해연구법]은 책이 얇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장점이 초심자에게는 곧바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저자가 아무리 3단계의 난이도로 예문을 배열했다 하더라도, 사다리의 간격이 너무 큼니다. 초보자가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노장석의 해설서는 아직 치아가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위한 이유식을 연상하게 합니다.**

오노 게이지로가 어려운 문장을 툭 던져주었다면, 저 노장석은 그것을 받아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몇 개의 단순한 문장으로 잘게 쪼개 놓았습니다. 작게 분해해 놓은 짧은 문장을 제시하고, 우리가 특히 가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문법사항에 대해서 정곡을 찌르는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www.영어구문론.com](http://www.영어구문론.com) 에서 제공되는 강의를 들으면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로 앞 문장은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짧고 간단한 문장에서 평소 어려워하던 문법사항을 쉽게 익혔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조금 복잡한 문장에서 같은 문법사항을 접해도 이번에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고난도 문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몇 개의 단순한 문장을 철저하게 이해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익힌 단순한 문장을 조립하게 합니다. 만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와, 이건 어렵다!’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문장이었겠죠. 그런데 이 책에 배열된 문장순서대로 그저 따라만 갔을 뿐인데, 세계에서 최고로 어렵다는 일본 본고사 기출문장이 ‘뭐야, 별거 아니네!’ 하고 딱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뭐야, 별거 아니네!’라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small step 원리에 기초하여 예문의 순서를 꼼꼼하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책에 제시된 예문을 징검다리 건너듯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문장이라도 그 구조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영문법 수준에서도 찢찢매던 사람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서도 일본 대학입시 본고사 기출문제 수준의 복잡한 문장도 한번 척 보면 알게 되는 수준까지 수직상승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면 현대 영어문장을 읽는 데에, 어디에서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어떤 문제집을 풀더라도 해석이 안 되어 고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실감이 안 납니다. 직접 공부해보면 small step 원리의 친절함과 위력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쾌, 상쾌, 통쾌!!! 가슴이 땡 뚫립니다.

오노 게이지로의 원저에 제시된 문장은 색칠된 박스 안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 앞에 색을 입히지 않은 박스 안에 있는 문장들은 원저에는 없는 내용이지요. 그건 바로 원래의 문장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해설자인 제가 마련해 놓은 징검다리용 예비문장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비단계가 필요 없는 고급 독자들은 색칠된 박스 안에 있는 문장들만 공부하면 빠른 속도로 총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 4. 영어의 본질에 충실한 어원분석과 잘 외워지는 어휘해설, 다의어와 유사어 일망타진

문법책에서는 문법만하고 어휘는 따로 어휘책으로 하는 비효율은 버려야 합니다. 문법과 독해 공부할 때 나오는 바로 그 어휘로 어원분석, 파생어, 다의어, 유사어도 한 방에 잡아야 합니다.

이 책의 어휘해설은 모두 제가 직접 독창적으로 달아 놓은 것입니다. 이 어휘해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 A. 근본원리에 충실한 어원분석

각 단어의 [맨 처음 뜻]을 알아내기 위해 기존의 라틴어나 희랍어 분석을 넘어서 산스크리트어, 고대 게르만어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어의 암기에 최적화된, 편리한 암기단서를 제시했습니다. 이 암기단서는 그저 단어의 단편적인 뜻을 좀 쉽게 외우라고 제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어의 최종적인 복병은 바로 다의어(多義語)입니다.**

각 단어의 [맨 처음 뜻]이야 말로 그 어렵고 짜증나는 다의어를 정복할 수 있는 핵폭탄 같은 무기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어원분석이 아니라 ‘아하, 그래서 그런 뜻이 생겼구나!’하고 자연스럽게 이해되게 만드는 어원분석으로 단어의 [맨 처음 뜻]을 제시한 다음에, 그 단어의 근원적인 뜻으로부터 출발하는 자연스러운 연상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다의어도 단박에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헛갈리기 쉬운 유사어도 한 자리에서 정리하고 이해하고 암기



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 B. 암기하기 쉬운 어휘배열

각종 접두사와 어근과 접미사를 활용하여, 원어민의 사고흐름에 입각한 어휘형성원리가 내 머릿속에서 저절로 각인됩니다.

영어단어의 구성원리를 깨달으면 [접두사71×어근354개×접미사71개]에 기초하여 거의 무한한 어휘확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영단어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에 입각해 쉬운 단어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단어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배열된 어휘를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신기하게도 유추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어휘의 순차적 배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4. All-in-one 통페이지 편집 (시간가성비 최강의 편집)

노장석의 해설서는 학습자의 시간과 공부리듬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장 보기 좋은 시각적 아름다움을 위해 학습자의 의식의 흐름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책의 배치가 언뜻보면 산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학습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장을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며 시간을 낭비하거나 공부 리듬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려는 해설자의 배려가 담겨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만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영문법이 신기하게도 차곡차곡 정리되는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 A. 문법사항 핵심POINT

먼저, [문법사항 핵심POINT]들을 꼭꼭 짚어서, 모든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일목요연한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문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것을 그토록 힘들어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문장 안에 너무 여러 가지 문법사항이 섞여 있다는 점도 문법책 진도가 안 나가게 만드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분명히 to-부정사 예문인데 그 예문 안에 나오는 that 혹은 as 때문에 아리까리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를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물론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죠. 하지만, 사람이 앞에서 한 번 배웠다고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학원강사 출신이 아니라 1:1 개인지도선생 출신입니다. 학습자의 가려움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수십 년간 지켜본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문이 to-부정사 예문으로 나왔더라도 학생이 that의 용법을 모르면 바로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문법사항이 나올 때마다 관련문법사항에 link를 걸어놓았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냥 쪽쪽 진도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확인학습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클릭 한 번만으로 여러분의 꼭 막혔던 가슴이 땀 뚫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없이 바로바로 진도를 딱딱, 시원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책의 편집이 산만하다고 말합니다. to-부정사는 to-부정사 단원에서만 설명하고 that의 용법은 해당 항목에서 설명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책이 일목요연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을 그렇게 만들면 독자에게 남겨진 선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 ① 중간중간 모르는 것 나올 때마다 책을 이리저리 뒤져가며, 혹은 검색해가며 의문점을 해소하기.
- ② 잘 몰라도 그냥 앞으로 쪽쪽 나가서 10회독을 돌파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지. (고승덕 같은 독종들의 가장 고전적인 공부법)
- ③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가 나오기 전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깨도난마와 같은 학습속도와 학습효과를 위하여 과감히 기본교제를 웹문서로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가령 that의 의미를 몰라 해석이 안 된다면 바로 위에 있는 [that의 용법] 항목을 클릭하기만 하면 곧바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부의 종점은 결국 종이책입니다. 손으로 밀줄 곳고, 손글씨로 연습해야 진짜 머리에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책 사용자들을 위해서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문법사항을 일목요연한 도표들로 가나다 순으로 사전식으로 정리해서, 그걸 다시 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사회과부도처럼 쉽게 찾아보라는 뜻이지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아야 할 문법사항 도표이름을 매번 기재해 놓은 것은 물론이구요. 제가 늘 얘기하는 ‘가리개’로 가려가면서 손글씨로 연습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 B. 예비문장과 본문학습

여러개의 [예비문장]을 거쳐서 step by step, 자연스럽게 [본문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학습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본문학습도 역시 [기초문장] → [응용문장] → [실전문장] 순으로 난이도 별로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순탄한 학습이 되도록 배려했습니다.

### C. 즉각적인 어휘확인

모르는 어휘는 문장 바로 아래에서 즉각 찾아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강력한 어원분석에 입각한 어휘해설, 유의어와 동의어 설명도 모두 해당 페이지에 도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휘 배치도 가장 이해하고 암기하기 쉬운 순서를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가령 'irrevocable'이라는 단어를 암기시키기 위해서 [voice → vocal → vocation → revocable → irrevocable]이라는 순서로 배치하여 각각의 단어에 어원분석, 암기요령 등 상세한 해설을 달아두었습니다.

이 모든 학습POINT들을 가능한 한 페이지 안에 정리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눈에 문제와 답이 모두 눈에 들어오면 공부가 안되겠지요.

**무릇 공부의 본질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여 모르는 것만 조직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복습할 때 카드로 가리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여 체크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반듯반듯한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1차 학습의 편의를 위해 기본서를 웹문서로 구성하였으나, 복습관리는 종이책을 활용하여 모르는 것에는 꼭 v 표시하면서, 반드시 손글씨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부 내용이 휘발되지 않고, 못이 박히듯 단단하게 뇌에 저장될 것입니다.

# 이 책의 공부 방법 How to study

## 이해는 강의와 웹문서로

### 복습은 종이책을 사용하여 카드로 가리면서 손글씨로

#### 1단계 : [문법사항 핵심Point] 숙지하기

강의를 통해서 철저히 이해하고, 확실히 아는 건 pass

복습이 필요한 항목은 제목 부분을 카드로 가리고 내용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하세요.

#### 2단계 : [어휘해설] 숙지하기

교재에서는 어휘가 문장 뒤에 배치되어 있지만, 복습할 때는 어휘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어원분석 및 어휘해설이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고 자세합니다. 어휘도 이해가 먼저입니다. 어원분석을 통해서 어휘의 맨 처음 뜻을 이해한 다음, 영단어를 보고 우리말을 말해 보세요. 특히 다의어는 머릿속에서 연상작용이 매끄럽게 작동하도록 손으로 마인드맵을 그려가며 복습하세요.

그다음에는 우리말 보고 영어 써보기를 연습하세요. 특히 우리말 보고 영단어 써보기를 하지 않으면 외웠던 단어가 마치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지식을 머릿속에 못질하는 기분으로 아는 것 모르는 것 구별해서 체크해 가면서 철저히 암기하세요. 머릿속에 지식을 못질한다는 표현에 걸맞는 공부를 하시려면, 종이책을 사용하여 카드로 가려가며 손글씨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 3단계 : diagram 그리고 해석하기

diagram은 제 경험상, 손글씨보다는 sentence diagram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웹문서로 구성된 기본서에 실린 문장 옆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sentence diagram 사이트가 나옵니다. 따로 타이핑할 필요 없이 곧바로 diagram 연습만 하면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바로 옆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완성된 diagram이 나옵니다. 곧바로 정답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diagram을 그려보면 이제까지 해왔던 공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슬슬 drag해서 단어들을 일정한 틀에 재배치했을 뿐인데, 문장의 구조와 의미가 그냥 온몸으로 깨달아잡니다. 체득(體得: 몸으로 익힘)이라는 말이 뭇지 정말 실감이 납니다.

물론 diagram을 손으로 종이에 그리는 것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복잡해질수록 위에서 말씀드린 [Sentence Diagram]이라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영어의 오른쪽구조]를 더 깊이 실감할 수 있으며, 영어문장이 정말 레고처럼 조립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diagram보면서 읽기.**

다른 건 보지 않고 diagram만을 보면서 문장을 순서대로 조립하는 기분으로 읽어봅니다.

**5단계 : 문장암송.**

눈을 감고 diagram의 구조를 시각화하면서 문장을 암송해봅니다. 딱 한 번 diagram을 그리고 해석해보았을 뿐인데 신기하게 암송이 됩니다. 아니 암송이라기보다는 머릿속에 찍힌 사진을 보고 읽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요. 전치사 하나까지 정말 세세하게 다 생각이 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천재라고 할 정도라니까요.

**6단계 : 우리말 해석보고 영작하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데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5단계까지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6단계 영작을 거치지 않으면 공부한 내용이 휘발유처럼 너무 빨리 날아가 버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종이책을 사용해서 손글씨로 연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는 카드로 가리고, 오른쪽에 배치된 우리말만 보고 영작 연습하는 겁니다.

만일 diagram훈련을 하지 않고 영어문장을 해석만 하고 넘어갔더라면, 영작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작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시도조차도 안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diagram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diagram을 그려보고 나면 문장의 구조가 마치 사진처럼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에 영작이 정말 쉬워집니다. 쉬워도 너무 쉬워집니다. 신기합니다. 이 건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실감을 못 합니다.

**영작이 영어공부의 꽃입니다.**

영작 연습을 해보면 독해, 작문, 어휘 등 영어의 모든 내용이 한꺼번에 내 몸에 체화가 됩니다. 강의만 듣거나 해석만 해보고 쓱쓱 지나가 버리면, 그건 공부도 아니고 읽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으로만 하는 공부는 백날천날 해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왕 이 책으로 공부하려면 꼭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방식대로 공부해주세요. 모쪼록 저의 해설서로 공부하는 독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공부해서 꼭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2019년 9월

노장석